

초고속통신망기술특집

특집 편집기



장 병 준

(현대전자산업(주)
CDMA 시스템 사업단)

지금 우리는 20세기의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로 꽃피울 21세기의 문턱에 와있다. 산업사회에서는 물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 항만 등의 물리적 하부 구조를 구축하였다. 즉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사람과 제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속도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서는 초고속의 거대한 양의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으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선진 각국은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의 경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정보 고속도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4년 3월 정보통신부 산하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초고속정보화기획단을 설치 운용중에 있으며 또한 '95년 4월에 총칙을 포함, 정보화의 촉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 및 정보화 촉진 기금 등의 제7장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안) 전문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 예정이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오는 97년까지 1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형빌딩, 교육 연구단지 등에 가입자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ATM 등 핵심 소요 기술을 개발하며, 2002년까지 2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까지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산업계 등에 관련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3단계에서는 일반가입자의 집안에까지 광케이블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광대역 종합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추어 본 특집에서는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구축계획, 핵심기술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순서로 꾸며 보았다.

아무쪼록 본 특집이 정부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옥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회의 발전을 기원한다.